

칼 맑스와 사회정책*

조영훈**

● 요약 ●

이 논문의 목적은 다양한 저작들 속에 산재해 있는 사회정책에 대한 견해들을 정리하여 칼 맑스의 사회정책론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 칼 맑스는 복지제도와 사회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칼 맑스의 사회정책론에는 복합적이고 때로는 상충하는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의 또 다른 목적은 그러한 상충하는 견해들을 재해석하여 복지국가에 대한 칼 맑스의 진정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이 논문은 칼 맑스의 사회정책론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회정책이론 분야에서 칼 맑스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칼 맑스의 사회정책론이 그동안 학계의 높은 관심을 끌지 못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사회정책개론서나 이론서에서 사회정책에 대한 칼 맑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고, 일부 연구자들은 그의 견해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다양한 저작들에 흩어져 있는 칼 맑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복잡하고 상호 모순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의 학문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사회개혁, 사회주의혁명, 공장법, 사회보장, 교육, 노동정책

* 이 논문은 2013년도 동의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yh1cho@deu.ac.kr).

1. 머리말

칼 맑스는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에 대해 체계화된 이론이나 잘 정리된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현대 복지국가의 초석인 독일의 사회보험들이 도입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고, 자신의 학문적 관심을 주로 자본주의사회의 변화와 같은 거시적인 사회변동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칼 맑스의 사회이론은 현대의 복지제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든가(Mishra, 1981: 69) 칼 맑스는 빈민법과 같은 복지제도나 빅토리아시대에 점증하고 있었던 국가개입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Pereira, 2013: 52) 식의 평가가 학계의 중론을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칼 맑스를 제외하고 현대의 사회정책이론을 논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그는 빈곤이나 사회불평등과 같은 사회정책의 핵심주제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였고, 상대빈곤의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빈곤을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자본주의체제에서 비롯된 사회문제로 간주했다. 또한, 현대 복지국가이론을 대표하는 사회민주주의론과 독점자본론이 칼 맑스의 이론과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정책연구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상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사회정책학계는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에 대한 칼 맑스의 견해에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칼 맑스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주로 역사유물론, 계급이론, 자본주의 변동론, 사회주의혁명론 등에 두어져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사회정책연구에서 차지하는 칼 맑스의 높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과 복지제도에 대한 칼 맑스의 견해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칼 맑스의 사회정책론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제임스 오코너로 대변되는 독점자본론의 주장이다. 정통 맑스주의로 평가되는 독점자본론의 주장은 칼 맑스의 견해를 충실하게 반영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복잡다단한 칼 맑스의 견해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독점자본론은 복지국가와 사회개혁조치들을 노동계급의 투쟁의식을 약화시켜 자본주의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편으로 폄하하고 반대한다. 과연 칼 맑스도 같은 입장이었을까?

칼 맑스는 자본주의의 착취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주의혁명을 가장 중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노동계급이 겪는 생활상의 고통에 대해 눈감거나 계급의식의 고양을 위해 노동계급이 더 고통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사회주의혁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해방 혹은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수단이었으며, 이런 점에서 그가 노동계급과 빈곤층의 생활향상을 추구하는 사회개혁조치들에 대해 반대했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다양한 저작들 속에 산재해 있는 사회정책과 복지제도에 대한 견해들을 정리하

는 데 있다. 칼 맑스는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복합적이고 때로는 상충하는 주장들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또 다른 목적은 그러한 상충하는 견해들을 재해석하여 사회정책과 사회개혁에 대한 칼 맑스의 진정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이 논문은 칼 맑스의 사회정책론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복지국가이론 분야에서 칼 맑스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칼 맑스의 사회정책론이 그동안 학계의 높은 관심을 끌지 못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사회정책개론서나 사회정책이론서에서 사회정책에 대한 칼 맑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고(Mishra, 1981; Lee & Raban, 1988; George & Wilding, 1994; Pierson, 1999; George, 2010), 일부 연구자들은 그의 견해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도 했다(Pemberton, 1983; Zilbersheid, 2004; Hollander, 2010; Pereira, 2013). 그렇지만, 다양한 저작들에 흩어져 있는 칼 맑스의 견해들을 정리하고, 복잡하고 상호 모순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의 견해를 재해석하여 종합하려고 시도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의 학문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정책 비판론

칼 맑스는 빈곤, 불평등, 인간소외 등 근대사회의 핵심적인 사회문제들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근대사회에서 노동자와 일반대중이 빈곤한 것은 게으름이나 나태와 같은 개인적인 잘못 때문이 아니라 자본가에 의한 착취 때문이며, 사회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은 자본가들에게는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지만 대중들에게는 저임금을 강요하는 자본주의체제상의 특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칼 맑스는 빈곤문제를 인구과잉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토마스 맬서스뿐 아니라 빈곤의 원인을 빈곤층의 도덕적 타락에서 찾고 빈곤층을 처벌하는 영국의 지배계층을 비판한다.¹⁾

이러한 칼 맑스의 견해를 영국사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람은 프리드리히 엥겔스이다. 그는 당시 영국 대도시들에서 노동계급 및 저소득층들은 한 방에 몇 명씩 기거하고 제대로 된 위생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체제에 있다고 주장한다.²⁾ 자본가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건

1) 칼 맑스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영국에서 빈곤은 인구가 언제나 생존수단보다 많다는 자연법칙에서 연유한다고 이야기된다. 다른 관점에서 영국은 빈곤을 빈자들의 도덕적 타락으로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빈자들을 처벌한다”(Marx, 1971b: 268).

2)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지적분하고 비위생적이며 거의 동물수준의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노동계급의 상황이 그들

강이나 주거환경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국가는 자본계급의 이익만을 중시한 나머지 노동계급의 주거문제 해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칼 맑스는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사회문제들이 자본주의체제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사회개혁조치들로는 그러한 사회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개혁조치들은 노동계급의 생활을 일정 정도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자본주의의 착취관계를 변화시키지는 않으며, 빈곤층과 노동계급을 자본주의 사회질서에 순응시킴으로써 자본주의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칼 맑스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는 자본가의 편에 서서 자본주의의 착취관계를 유지시키고 강화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공산당 선언』에서 그는 “근대국가의 행정부는 전체 부르조아지의 공통사를 관리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즉, 자본주의사회의 국가는 자본계급에 의해 조종되어 자본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사회정책은 자본주의체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빈곤층과 노동계급이 아니라 자본계급인 것이다.

칼 맑스는 국가의 사회정책이 빈곤 및 사회불평등과 같은 자본주의의 사회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서는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개혁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자본주의체제의 전복만이 그 해결책인 것이다. 그가 꿈꾸는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욕구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이며, 여기서는 자본주의의 특징인 빈곤과 사회불평등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칼 맑스는 주로 공산주의 운동 관련 문헌들에서 제시한다. 예를 들어서, 1850년의 한 연설문에서 그는 “뽀띠 부르조아 민주주의 정당[현대적 의미의 개혁적 자유주의 정당 혹은 사회민주주의 정당: 저자 주]은 노동자들을 위한 좋은 임금과 보장을 원하며, 이러한 목적을 공공부문의 고용과 복지프로그램들의 확대를 통해 성취하기를 원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이 “위장된 형태의 구호금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매수하고자 하며, 노동자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일시적으로 견딜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혁명적 힘을 분쇄하고자 한다”고 비판한다(Marx & Engels, 1850).

또한, 1848년에 쓴 『공산당선언』에서 칼 맑스는 공산당을 제외한 다른 사회주의정당들을 개량주의로 비판하면서 “박애주의자, 인본주의자, 노동개혁가, 자선사업가, 동물보호운동가, 각종 형태의

의 도덕적 타락에서 비롯되었다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들을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 노동자들의 음주는 장티푸스, 해충, 범죄 및 여타의 사회적 질병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생활조건이 초래하는 필연적인 산물이다”(Engels, 1995).

개혁가들”을 포괄하고 있는 이 정당들은 자본주의의 착취관계를 변화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사회문제들을 부분적으로 해결하여 자본주의사회를 지속시키는데 초점을 둔다고 비판한다(Marx & Engels, 1883: 27). 또 다른 문건에서도 칼 맑스는 개량주의를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는 자본과 임노동이라는 양극단을 없애는 대신에 양자의 대립을 완화하고 양자를 조화로운 관계로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민주공화제를 요구한다는 특징을 지닌다고 지적한다(Marx, 1937: 23).³⁾

칼 맑스는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그러한 사회개혁 내지는 사회개량이 아니라 자본주의 착취관계의 종식을 위한 혁명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재산을 소유한 계급들이 지금의 지배적인 위치에서 추방되고 프롤레타리아가 국가 권력을 장악할 때까지 혁명을 영구화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이자 과업이”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사유재산제도의 변경이 아니라 폐지이며, 계급대립의 순화가 아니라 계급의 폐지이며, 기존사회의 향상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라는 것이다(Marx & Engels, 1850).

이와 같이 자본주의체제 내에서의 개혁이 아니라 혁명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칼 맑스는 사회정책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칼 맑스에 대한 사회정책학자들의 평가도 대체로 이런 점을 부각시킨다. 예를 들어서, 최초로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칼 맑스를 평가한 로버트 핁커에 따르면, 칼 맑스는 복지정책을 포함한 사회개혁 프로그램들이 빈곤층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혁명적인 변화 없이 사회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판하였다고 한다(Pinker, 1972: 37) 또 다른 학자에 따르면, 칼 맑스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하에서는 광범한 노동대중의 진정한 복지를 보장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불가능하고, 대다수를 위한 진정한 복지는 사회주의로의 혁명적 전환과 함께 시작된다고 한다(Pierson, 1991: 11; Pierson, 1999: 177).

3. 사회정책 긍정론

이상과 같이 칼 맑스는 자본주의체제 내에서의 개혁을 의미하는 사회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국가에 의한 사회정책은 빈곤과 사회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는 사회개혁과 사회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극단적인 견해만을 피력하지는 않는다.

3) 이와 비슷하게, 프리드리히 엥겔스도 『공산주의의 원칙들』이라는 문건에서 부르조아 사회주의자들은 부르조아 사회의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조치나 거대한 사회개혁을 제안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이들에 대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Engels, 1847).

그는 노동계급의 생활상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사회정책과 같은 사회개혁조치들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1) 공장법(factory acts)

자주 언급되는 대로 사회개혁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칼 맑스의 견해는 『자본론』 등에 제시된 영국의 공장법에 대한 분석에 잘 드러나 있다. 공장법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19세기 초반부터 후반까지 영국에서 도입된 일련의 노동입법들을 말하며, 이 가운데 칼 맑스는 1830년대 이후에 도입된 공장법들에 초점을 둔다. 수 십 년에 걸쳐 도입된 공장법들의 주요 내용들은 하루 10시간 근로, 취업연령 제한, 야간노동의 금지, 휴일 및 휴식시간 보장, 보건 및 아동교육의 규정 등이다.

칼 맑스는 자본가에 의한 착취를 제한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공장법의 도입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영국의 공장법은 국가규제를 통해서 노동일을 강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노동력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본의 열정을 제약”하였으며, “자본의 착취권에 개입”하였다고 한다(Marx, 1987: 229, 459). 또한, 그는 공장법의 도입에 의해 아동들의 노동에 제약이 가해졌을 뿐 아니라 무산계급의 아동에 대한 초등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점도 높게 평가한다. 공장법에 의해 초등교육과 공장노동이 결합함으로써 “생산성의 향상과 함께 인간성의 향상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Marx, 1987: 453-4).

이와 함께, 칼 맑스는 10시간 노동법을 근간으로 하는 공장법의 제정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도 노동계급이 자본계급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에 따르면, “10시간 노동법은 중요한 실천적 성공이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부르조아의 정치경제학이 프롤레타리아의 정치경제학 앞에서 공개적으로 항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Marx, 2000a). 자본주의체제 하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자에 비해 훨씬 많은 권력을 지니고 자본가의 이익이 훨씬 더 잘 보장되기는 하지만, 공장법과 같은 사례는 노동계급의 이익 앞에서 자본가의 이익이 일정 정도 양보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노동계급은 어떻게 하여 자본계급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 칼 맑스는 노동계급의 단결된 힘과 지속적인 투쟁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영국의 노동계급은 30년 동안의 지속적인 투쟁을 거쳐 지배계급에게 압박을 가했으며, 19세기 동안의 지주계급과 자본계급 간의 일시적 분열을 이용하여 공장법의 제정에 성공하였다고 한다(Marx, 1987, 2000a).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의 역할이다. 칼 맑스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개별적인 노동자들을 노동계급 및 노동계급정당으로 결속시킴으로써 입법부에 대해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했고,

이를 통해서 10시간 노동과 같은 공장법의 핵심 사항들을 관철시켰다고 한다(Marx & Engels, 1883: 14). 칼 맑스는 노동조합의 최종목표를 자본주의체제의 극복에 두면서도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이나 노동시간의 제약과 같은 활동에 매진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노동조합활동이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일반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Marx, 2000b: 163).

칼 맑스에게 있어서 공장법의 사회적 효과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그가 볼 때 노동시간과 노동일을 제한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각종 조치들은 노동계급의 체력적 고갈과 산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지적 발달과 사회적 교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나 정당 등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점에서 공장법은 노동계급의 해방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한다(Marx, 2000b: 160). 자본주의체제 내에서의 개혁조치인 공장법이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⁴⁾

이와 같이 칼 맑스는 공장법을 비롯한 각종 사회개혁조치들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이 때문에 칼 맑스는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더 단축할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공장법 등의 개혁조치들이 세계 모든 노동운동의 공통적인 정강정책으로 채택되고 모든 국가들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Marx, 2000b: 160). 그에게 있어서 공장법은 차티스트 운동에 비견될 정도로 대중들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큰 일대 사건이었다.

2) 각종 사회정책

칼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정책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동료인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1834년에 제정된 신민법에 대해 서술한 바 있다. 신빈민법은 1601년에 제정된 이후 점차 관대해져 갔던 빈민법을 신고전파 경제학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빈민에 대한 국가부조를 매우 엄격하게 만든 조치이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1601년의 (구)빈민법이 빈곤층의 생활을 보호하고 유지해 주는 것이 교구의 의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고 빈곤층이 구호를 호의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로 간주하게 했다고 높게 평가한다(Engels, 1969b: 225). 반면에, 그는 신빈민법이 (구)빈민법의 거의 모든 조항들을 폐지하고, 가족을 해체시키며, 빈민층을 비인간적으로 취급한다고 비판한다. “신빈민법은 국가와 사회로

4) 노동자의 물질생활의 향상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칼 맑스의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도 잘 드러난다. “[노동자들의] 물질적 상태가 개선되면 그들은 자기 자식들의 교육에 더욱 더 마음을 쏟을 수도 있다. 처자식이 공장을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 자신도 자신의 정신을 한층 더 수양하고, 자신의 신체를 더욱 더 단련시킬 수 있다. 이윽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이다”(Marx, 1988: 90).

부터 프롤레타리아들이 축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프롤레타리아들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인간으로 취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는 것이다(Engels, 1969b: 229). 그는 신빈민법을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부르조아지의 선전포고”로 규정하면서 신빈민법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다(Engels, 1969b: 224).

사회정책들 가운데 칼 맑스가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아동교육이다. 앞에 서술한 대로 칼 맑스는 공장법이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 중의 하나로 근로아동들에 대한 초등교육의 실시를 들고 있다. 그는 근로아동에 대해서도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의 내용으로 지식교육, 체육, 직업훈련(생산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 및 모든 직업들에서 요구되는 초보적인 도구들의 사용법 숙달)을 지적한다. 칼 맑스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노동계급이 상류계급이나 중산계급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는 근로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회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칼 맑스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위해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대신해 행동해 주는 것이 사회의 의무라는 것이다(Marx, 2000b: 160-161).

이와 같은 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칼 맑스는 공산주의의 전 단계인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의 실시를 주장한다. 그는 『공산당선언』에서 당시의 공장에서 행해지던 형태의 아동노동을 폐지하고 교육과 노동의 결합을 주장하면서 “공립학교에서의 모든 아동들에 대한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다(Marx & Engels, 1883: 22). 또한, 그는 독일의 프롤레타리아와 자영업자 및 농민들을 위해서 보편적인 무상교육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Marx & Engels, 1848), “모든 아동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도 및 아동의 성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확립”을 제안한다(Marx & Guesde, 1880). 프리드리히 엥겔스도 국가의 비용으로 국가시설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아동들에 대한 무상교육의 실시를 주장한다(Engels, 1847)

칼 맑스는 초등교육을 보편주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보편주의의 원칙을 고등교육으로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반대한다. 고등교육의 경우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만일 미국의 어떤 주들에서와 같이 고등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된다면 그것은 상류층의 교육비용을 일반조세로부터 충당해 주는 것”이 된다고 한다. 그는 법률서비스에 대해서도 그것이 주로 재산소유자들에게만 제공된다는 점에서 국가가 무료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Marx, 1970: 21). 이와 같이 칼 맑스는 보편주의 원칙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보편주의 사회서비스가 주로 재산소유자에게만 이익을 줄 경우에는 보편주의의 원칙에 반대한다.

교육 이외에 칼 맑스는 몇 가지 사회정책들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한다. 우선, 그는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및 주당 6일로 제한하고 14세 이하 아동의 노동을 금지할 것을 제안한다. 적절한 휴식시간이 확보되어야 노동자의 건강권과 건전한 사회활동이 보장되고, 아동의 근로가능 연령을 제한해야 아동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그는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제정할 것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적용을 주장한다. 최저임금은 매년 노동자 통계위원회가 작성한 지역별 식품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Marx & Guesde, 1880).

사회보장의 영역에서 칼 맑스는 국가가 모든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할 뿐 아니라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생계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국가가 그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시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된 바는 없다. 다만, 그는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의 생활에 대해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고, 고용주의 기여금에 기초한 사회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산재사고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Marx & Guesde, 1880). 칼 맑스는 노인복지서비스와 장애인복지제도, 그리고 산재보험의 도입을 주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칼 맑스는 공중보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대영제국의 경제적 번영에 대한 찬사들을 비판하면서 당시 대중들의 건강이 매우 나빴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한 국가의 공중보건은 대중들의 건강을 의미하며, 대중들은 최하층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어느 정도나마 윤택하지 않으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한다(Marx, 2000a). 이와 같이 칼 맑스는 대중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공중보건 수준의 향상과 함께 물질생활의 보장을 요구한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도 『주거문제』 등의 저서를 통해 빈곤층 지역의 위생문제를 다룬 바 있다. 그는 도시지역의 비위생적인 주거지를 철폐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주택의 건설을 제안한다(Engels, 1995).

칼 맑스는 이상과 같은 각종 사회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는 모두 폐지하고 매우 누진적인 성격의 소득세를 중심으로 조세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Marx, 2000b: 163; Marx & Engels, 1848, 1883: 22). 보다 구체적으로, 칼 맑스는 프랑스 노동자정당의 정강정책을 제시하면서 3,000프랑 이상의 소득을 누진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Marx & Guesde, 1880). 공산주의의 전 단계인 사회주의에는 사유재산이 완전히 철폐되지 않고 자본주의의 사회계급들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누진성이 강한 소득세를 통해 사회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4. 맺음말

칼 맑스는 사회개혁 내지는 사회정책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한다. 그는 노동계급의 생활을 향상시켜 계급갈등을 줄이고 사회주의혁명의 발발 가능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사회개혁정책을 반대한다. 사회정책과 같은 사회개혁조치들은 노동계급을 자본주의체제에 묶어놓기 위한 뇌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그는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다 향상시켜 준다는 점에서 사회개혁정책의 도입에 찬성한다. 사회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의 보다 인간성 회복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상충되는 견해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칼 맑스가 복지국가에 반대하였다는 견해를 지지한다. 그들에 따르면, 칼 맑스는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했기 때문에 사회정책 혹은 복지국가와 같은 자본주의체제 내의 개혁들에 반대하였다고 한다. 그가 사회개혁조치들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며, 그러한 예외를 가지고 그의 사상 전체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자는 칼 맑스가 『자본론』에서 공장법의 분석을 통해 사회입법의 중요성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것을 그의 사상 전반에 대한 고려 없이 단편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한다(Pereira, 2013: 52).

정통 맑스주의에 속하는 독점자본론이 자본주의체제 유지의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설명하는 것도 이상과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독점자본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독점자본주의단계에서 국가가 자본가에 의한 지나친 착취를 예방하여 노동계급의 존속을 보장하고 국가와 사회체제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보장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사회정책들을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복지정책들은 노동계급이나 빈곤층의 생활을 향상시키기는 하지만,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을 약화시키고 자본주의체제에 종속시키는 결과는 낳는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진정한 수혜자는 자본주의체제의 안정화라는 결실을 얻은 자본계급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노동계급의 진정한 해방을 의미하는 사회주의혁명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독점자본론은 복지국가를 노동계급의 적으로 평가한다(Gough, 1979; O'Connor, 1973; Offe, 1984).

이상과 같은 해석은 사회주의혁명을 통한 자본주의의 극복이라는 칼 맑스의 근본적인 관심을 반영하기는 했지만, 매우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것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칼 맑스는 사회주의혁명을 가장 중시했기 때문에 계급의식과 계급갈등의 확산을 가로막는 어떤 형태의 사회개혁에

도 반대한 것이 된다. 실제로, 어떤 학자는 칼 맑스의 논리를 따르면 빈곤은 혁명의 촉발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빈곤층에게 좋은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고 한다(Pinker, 1972: 37).

칼 맑스가 사회주의혁명을 아무리 간절하게 염원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해석은 지나친 것이다. 칼 맑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사회의 도래를 꿈꾼 것은 자본주의가 분업체제와 착취를 통해 노동의 소외와 노동자의 비인간화를 초래하기 때문이었다. 그의 궁극적인 관심은 노동자들의 인간화 내지는 인간적인 삶의 회복에 있었던 것이며, 사회주의혁명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가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고통에 눈감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부추겼다고 해석하는 것은 칼 맑스 사상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아닐 수 없다.

인간 소외의 극복과 인간성의 회복을 추구했던 칼 맑스의 관점에서 볼 때 프롤레타리아의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개혁조치들은 비록 자본주의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환영할 만한 것이다. 실제로, 칼 맑스는 공장법에 대해 평가하면서 그러한 개혁조치들이 미래에 도래할 사회주의 혁명을 기다리는 동안 프롤레타리아가 겪을 고통을 경감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Marx, 1987: 20).

칼 맑스는 노동계급이 착취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주의혁명을 통한 자본주의의 폐지와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의 사회문제를 경감시키는 데 불과한 사회정책과 같은 사회개혁조치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칼 맑스가 사회개혁조치들을 언제나 불필요하다거나 해로운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노동계급의 현실적인 고통을 줄여주는 사회개혁조치들을 환영하였다. 그가 반대한 것은 사회개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개혁주의자들이지 사회개혁조치 그 자체가 아니었던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의 극복과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에 대한 칼 맑스의 기본적인 관점은 ‘가능한 곳에서는 개혁을, 필요한 곳에서는 혁명을’이었다(George, 2010: 126). 그는 자본주의의 착취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폭력적인 혁명뿐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도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다양한 국가들의 제도들, 관습들, 전통들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미국이나 영국처럼 (혹은 네덜란드까지 포함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Marx, 1971b: 294).

다수의 맑스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칼 맑스는 사회정책과 사회개혁 조치들에 대해 반

대하지 않았다. 그는 사회정책의 한계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노동계급의 생활상의 향상을 위해 사회정책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사회정책이 계급의식을 약화시켜 사회주의혁명을 지체시킨다고 비판하기보다는 노동계급의 지적 발달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노동계급의 해방을 위한 전제조건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있어서 사회정책은 자본주의체제의 변혁을 위한 또 다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다.

칼 맑스는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에 대해 체계적인 이론을 내놓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 맑스는 사회정책의 제공에 있어서 보편주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현대의 사회정책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개혁조치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현대 복지국가이론에 크게 기여하였다. 사회과학의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칼 맑스는 사회정책분야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통찰력과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칼 맑스. (1988). 하만과의 대화. 이경숙(역). 맑스·엔겔스의 노동조합이론. 서울: 새길.
- Adams, P. (1985). Social policy and the working class, *Social Service Review*, 59(3), 387-402.
- Engels, F. (1881a). The wage system, *Frederick Engels' articles for the labour standard*,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
- _____. (1881b). A workingmen's party, *Frederick Engels' articles for the labour standard*,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
- _____. (1969a). Introduction, *Class struggle in France 1848-1850.*, Moscow: Progress Publishers.
- _____. (1969b). *Conditions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Panther.
- _____. (1969c). *The principles of communism, Selected work, Vol. 1*, Moscow: Progress Publishers,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
- _____. (1995). The housing question, Cooperative publishing society of foreign workers,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
- George, V. (2010). *Major thinkers in welfare: Contemporary issues in historical perspective*, London: Policy Press.
- George, V. & Wilding, P. (1994). *Welfare and ideology*, New York: Harvester.
- Godels, G. (2004). Revolution without pain: A critique of Uri Zilbersheid's 'welfare state and democracy in Marx's theory of revolution', *Nature, Society and Thought*, 16(1), 101-110.
- Gough, I. (1979).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London: Macmillan.
- Hollander, S. (2010). Marx and Engels on constitutional reform vs revolution: Their revisionism reviewed, *Theoria, March*, 51-91.
- Jordan, A.(ed.). (1971). *Karl Marx: Economy, class and social revolu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Jordan, Z. (ed.). *Karl Marx: Economy, class and social revolu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_____. (1971b). Critical marginal notes on the article 'the king of prussia and social reform by a prussian. In Z. Jordan(ed.). *Karl Marx: Economy, class and social Revolu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_____. (1971c). The Chartists. In Z. Jordan(ed.). *Karl Marx: Economy, class and social revolu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_____. (1987). *Capital, Vol. 1*,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 _____. (2000a). Inaugural address of the international workmen's association,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64/10/27.htm>.

- _____. (2000b). Instructions for the delegates of the provisional general council, *The International Courier* No. 6/7, 8/10.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
- Lee, P. & Raban, C. (1988). *Welfare theory and social policy: Reform or revolution?* London: SAGE.
- Marx, K. (1937).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Napoleon*. Moscow: Progress Publishers.
- _____. (1947). *The German ideology*.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 _____. (1970).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Moscow: Progress Publishers.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
- _____. (1971a). Report of Marx's speech at a meeting in Amsterdam, In
- Marx, K. (2010). Wage labour and capital, *Neue Rheinische Zeitung*.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
- Marx, K. & Engels, F. (1850). Address of the central committee to the communist League.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47/communist-league/1850-ad1.htm>.
- _____. (1883). *Communist manifesto* (5th edition). London: William Reeves.
- _____. (1849). Wage labour and capital, *Neue Rheinische Zeitung*.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
- _____. (1848). Demands of the communist party of Germany.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
- Marx, K. & Guesde, J. (1880). Introduction to programme of French workers' party.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
- Mishra, R. (1981). *Society and social policy: Theories and practice of welfare* (2nd edition). Atlantic Highlands, NJ: Humanities Press.
- O'Connor, J. (1973).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 New York: St. Martin Press.
- Offe, C. (1984). *Contradictions of the welfare state*. Cambridge, Mass.: MIT Press.
- Pemberton, A. (1983). Marxism and social policy: A critique of the 'contradictions of welfare'. *Journal of Social Policy*, 12(3), 289-307.
- Pereira, A. (2013). The concept of equality and wellbeing in Marx, *Revista Katalyst*, 16(1), 47-56.
- Pierson, C. (1991). *Beyond the welfare state?*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Marxism and the welfare state. In A. Gamble, D. Marsh & T. Tant (eds), *Marxism and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Zilbersheid, U. (2004). Welfare state and democracy in Marx's theory of revolution, *Nature, Society and Thought*, 16(1), 67-100.

Abstract

An Evaluation on Karl Marx's View on Social Policy

Cho, Young Hoon*

This article aims to find Karl Marx's views on the social policy and to reorganize them into a systematic social policy theory. His views on the welfare state are scattered in diverse works including Capital and Communist Manifesto, and are very complicated and sometimes contradictory. This article further aims to reinterpret his contradictory views on social policy and to attempt to show what he really meant on social policy. By so doing, this article will contribute to re-establishing Karl Marx's status in the field of social policy study.

Karl Marx's social policy theory is one of the least researched area in social policy, although several Western scholars introduce and evaluate his views on the welfare state in social policy textbooks and articles. In particular,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 work attempting to reorganize and reinterpret Karl Marx's contradictory views on social policy. In this regard, this article deserves a significant academic concern.

Key Words: social reform, socialist revolution, factory act, social security, education, labor policy.

◆ 2016.07.29. 접수 / 2016.09.09. 1차 수정 / 2016.09.21. 게재확정

* Professor, Dong-Eui University